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이 도시민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경험

The Impact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in Building Social Capital of Urban Residents: The Experiences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in Daegu Metropolitan City

이권희 Lee Gwonhee*, 박중화 Park Jong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mpact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in building social capital.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tries to connect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with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establish 3 research hypotheses, to employ factor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for the related questionnaire survey, and then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The major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there is a composite emergence of market interaction as well as non-market interaction in the change of residents' perceptions through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there is a positive impact of the change of residents' perceptions through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on building social capital; and there are differences of content characteristics for major variables of residents' perceptions in building factors of bridging social capital and bonding social capital. As the related policy implications, the paper, first of all, suggests that there are necessities for maintaining inclusive policy viewpoints for the meaning of historical-cultural contents' use. Second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re are necessities for the differentiated policy approaches by the type of social capital.

Keywords: Historical-Cultural Contents, Bridging Social Capital, Bonding Social Capital,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1. 머리말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양적 팽창 및 질적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제3의 자본으로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관련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사회 형성 및 지속가능한 정부 정책의 전제로 사회적 자본의 소생과 창조 또는 재창조가 강조되고 있다. 특

히 공동체 해체로 빚어진 도시의 문제를 진단 내지 해소하는 강력한 지표로서 사회적 자본은 그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들이 치중해온, 개발과 재건축을 통한 물리적 도시재생 방식은 오히려 거주지 주민의 이탈을 상당 부분 가속화시켜 왔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불평등은 물론 도시의 정체성을

* 문화산업전문기업(주)ATBT 대표,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제1저자) | CEO, ATBT Corp., Ph.D. Candid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 Primary Author | lgh@atbt.or.kr

**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교신저자) | Prof.,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Kyungpook National Univ. | Corresponding Author | hwapark@knu.ac.kr

훼손하는 요소로 작용하여 도심 공동화로 이어지는 부작용의 주요 요인이 되었다(배웅규 2013). 다만, 최근 도시재생 전략은 기존의 관점에서 차츰 벗어나면서 주민 참여형의 소프트웨어적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의 핵심 콘텐츠로서 역사문화자산의 활용성과 가치 개념이 도입되고 있다(오동훈 2014, 54).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연구는 주민 참여를 통한 일상문화의 복원, 주민 생활공동체 측면에서 정책개발의 관점 외에도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2011년 대구 도심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탐방 체험학습이 시작된 이래 연간 수십만 명의 시민을 불러들이며 도시의 모습을 바꾸고 있다. 점으로 흩어져 있던 역사문화 콘텐츠가 선으로 연결되어 면을 이루면서 하나의 공간이 생겨나고, 이 공간들이 결합하여 기억과 흔적을 담은 생활공간으로 재탄생되고 있다(이권희, 박종화 2014, 794).

따라서 본 논문은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관련 직·간접 경험자들인 대구시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태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관련 주민인식 변수들이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주민인식 변수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요인분석과 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수행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 공동체 회복에 대한 부분적인 답이 된다면 향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의 사회적 자본 요소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II. 이론적 고찰

1.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지난 반세기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대에 부합하는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이 도시개발에 적용되어 도시의 기능 및 생활편의 개선에 치중해 왔다. 그런데 이는 도시의 인구집중 현상을 가속화시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도시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상실, 환경문제 야기, 도시생활 질 저하, 그리고 도시경쟁력 저하라는 부정적 결과를 야기시켜 왔다. 도시재생이란 침체도시 또는 침체의 징후가 있는 도시영역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기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백기영 2013, 13).

도시재생의 정책 방향은 재개발, 재건축, 신규 개발 등에서 관리 중심의 도시정비와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기존 주택공급 중심의 정비사업은 한계점을 드러내면서 정비구역 해제, 뉴타운 사업의 철회 등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물리적, 국지적 도시정비에서 사회, 경제, 문화 등 복합적 도시재생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더불어 고유한 도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도시의 사회경제적 고려와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사람과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도시재생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그 외 행정 주도의 정책집행 체제에서 주민참여형 거버넌

스 체제로 변화를 보이는 점도 살펴볼 만하다. 사업집행에 있어 행정조직 중심체제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참여와 공감을 얻는 과정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폭넓은 주민의사 반영이 요구된다. 최근의 도시재생은 대규모 신규 개발사업 방식에서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성장 관리와 정비·복원 방식으로 방향이 변하고 있으며, 도시정책 대상도 기반시설 구축 및 공간구조 개편에서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으로 이행되고 있다.

한편, 현대의 도시들은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떻게 도시의 가치를 높일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국제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방안으로 물리적 환경, 양화될 수 있는 경제적 요소들 이외에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행위의 결과로서 사람과 문화 등의 무형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있다(변미리 2014, 115). 이제껏 도시경쟁력의 주요 척도였던 소득 등의 경제지표 이외에도 사회적 시스템이나 역사문화적 수준, 도시의 생활양식 등 도시가 갖고 있는 질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2.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

공동체는 상호 의존적인 사람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그물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지역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가치나 규범, 역사, 정체성 등의 특정 관습들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공생적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시켜 갈 것으로 보인다(Granovetter 1973, 1360 ; 김진아 2014, 116).

사회적 자본의 개념은 기존에 간과되어 왔던 새로운 형태의 자본이자 권한과 활동역량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Burt 2000, 255; Fine 2001). Putnam(2000, 281-287)은 사회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

의 특성을 사회적 자본으로 규정한다. Ostrom and Ahn(2007, 4-5)은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이자 형태로서 믿을 만함, 네트워크, 제도를 들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집합적 행위를 촉진하는 규범과 네트워크(Wolcock 2001, 1 ; Lowndes and Pratchett 2008, 677 재인용)이며, 이것이 없었을 때는 불가능했을 목적을 달성하게 해준다(Coleman 1988, 98). 결과적으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로부터 유도되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 가능한, 사회적 네트워크에 착근되어 있는 실질적·잠재적 자원의 총합을 일컫는다고 볼 수 있다(Nahapiet and Ghoshal 1998, 243). 따라서 잘 작동하는 공동체는 그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고, 또 그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선순환적 흐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견할 수 있다. 도시재생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공동체의식 형성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협동조합 등 다양한 공동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윤갑식, 오용준(2014, 125)은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체의식 제고 관련 연구를 통해 공동체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커뮤니티 공간 조성, 환경정비활동, 주민자치활동, 경제적 협동활동, 친목·봉사활동, 교양강좌 운영 등 여섯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박수현, 김태영, 여관현(2013, 207)은 성남시 문화공동체 사업을 사례분석하여, 문화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의식 형성요인을 분석하고 거주자 특성 요인과 프로그램 요인, 물리적 환경요인 중 프로그램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변수로 나타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공동체의식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문화프로그램의 기획과 실행이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역주민이 문화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과

정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다양한 지역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들이 결국에는 공동체의 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적 또는 사회·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독창적인 문화프로그램의 구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장유미, 염동문(2014, 764)은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관적인 정신건강이 지역주민들의 삶에 내재되거나 변화되고 있는 신뢰, 사회참여, 네트워크 역량, 지역사회 의식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3. 역사문화 콘텐츠와 사회적 자본과의 연계성

최근 역사와 문화는 각각의 영역을 넘어 융·복합적 결합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로 그 의미가 조명되고 있다.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한 학술적 정의가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문화 자산을 구성하는 내용 내지 실체로 흔히 건물, 시설, 가로 등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이권희, 박종화 2014, 804-805). 따라서 대상물 그 자체의 실체적인 의미보다 그 속에 담겨 있는 역사성과 시대정신 그리고 보전의 가치개념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 초점이다. 역사문화 콘텐츠는 대개 장소성을 내재하고 있다. 역사문화 콘텐츠는 도시와 지역의 정책지표가 되고 있으며 도시의 이미지를 규정하는 요소로 활용되는 등 국내외적 관심과 활용방안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권영상 2011, 240). 즉, 역사문화 콘텐츠는 도시와 지역의 미래 경쟁력에 중요한 창조적인 어떤 실체로 이해되면서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이란 역사문화 콘텐츠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가치, 기능

또는 능력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 또는 기능,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도시에 대한 평가가 인구, 인프라 등 물리적 측면과 함께 개방과 배려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회복 등의 가치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이 해당 도시민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역사문화 콘텐츠에 대해 맹목적 보존보다 이를 일상생활 공간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인식이 일어나면서, 점·선적 보존정책에서 면적·공간적 활용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항집(2011, 123), 김남희(2013, 136), 강인호, 김선명, 이제만, 이도석(2014, 75) 등의 선행연구들은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지역 정체성의 확보, 지역 공동체의 형성,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측면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과 순기능 효과, 지역 사회적 자본 간의 선순환적 사회적 관계 형성을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적 자본은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그 기능에 따라 묶임이 되는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관계들이다. 그와 같은 사회적 관계는 Warren(2008, 133-135)이 지적하는 것처럼, 한 가지 맥락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다른 맥락에서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현될 수 있다(박종화 2011, 63). 즉 사회적 자본은 개념적 분석에 치중하는 것보다 상황적 분석이 필요하다(박종화 2015, 3). 같은 맥락에서 Putnam(2000)은 사회적 관계 내에 착근된 성질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자본을 인연형(bonding) 사회적 자본과 교량형(bridging) 사회적 자본으로 분별한다(Putnam 2000; Warren 2008, 133-135; 박종화 2015, 3-4 재인용). 인연형 사회적 자본은

배타적이고 유사한 성격의 집단들에서 표출된다. 회원제 컨트리클럽같이 회원에게만 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사회적 관계에서 일종의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특징적인 호혜성을 토대로 ‘삶을 헤쳐나가는 수단(getting by)’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외부성의 생성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해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포용적인 성격상 다양한 사회계층을 망라하는 외부지향적 집단들에서 나타난다. 소위 Granovetter (1973)의 ‘약한 연계(weak ties)’ 형태 등에서 나타나는 포괄적인 호혜성을 토대로 ‘삶에서 앞서 나가는 수단(getting ahead)’으로 작용한다.

최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그 도시만의 고유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경제적 가치와 연결하여 활용하려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화 콘텐츠가 과거와 소통하며 가치를 나누고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역사문화 콘텐츠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지역민들 간의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자원임에도 이를 설명하는 이론이나 사례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유·무형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가지는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 커뮤니티 형성 등 공동체 복원의 동인이자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의 활용가치와 함께 관련 인식의 지평을 넓혀나가고자 한다.

III.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현황과 연구분석의 틀

1.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현황

1)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의 입지 특성

대구 도심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산업구조의 변

화에 따라 인구 감소,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를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곳은 옛 대구읍성을 중심으로 반경 1km 안에 원삼국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문화 자산이 녹아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장소다. 대구의 근대문화유산 134개소 중 64개소, 즉 47.7%가 도심에 분포되어 있으며, 지정문화재 18개소 중 17개가 도심에 분포하고 있다(조지현 2007, 11). 대표적인 도심 역사문화 콘텐츠는 달성토성, 경상감영공원, 1906~1907년 철거된 대구읍성 관련 유적과 2.28기념중앙공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등이다. 대구읍성을 중심으로 외곽에는 북성로 공구골목, 약령시 약전골목, 진골목, 화교거리, 뽕나무골목 등 특색 있는 근대 골목들이 소재하고 있다. 북성로 초입 향촌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근대문학, 전쟁문학의 발상지이며, 북성로에 인접해 들어섰던 옛 연초제조창은 한국근대산업을 이끈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세계일류기업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회 옛터가 북성로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골목은 대구 근대 부자들의 가옥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 골목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약전골목은 가장 대구다운 골목으로 1907년 3~4월경 대구읍성의 남쪽 성곽과 객사가 헐리면서 약재상이 이곳으로 옮겨와 상설화되면서 생긴 거리다. 2001년부터 약령시 축제가 대대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한방테마 특구가 조성되었다(이권희, 박종화 2014, 797-798).

2)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 이래 5년째 지역 학생들에게 애호심을 고취하는 창의인성 체험학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연계된 역사인식의 중요성을 받아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나아가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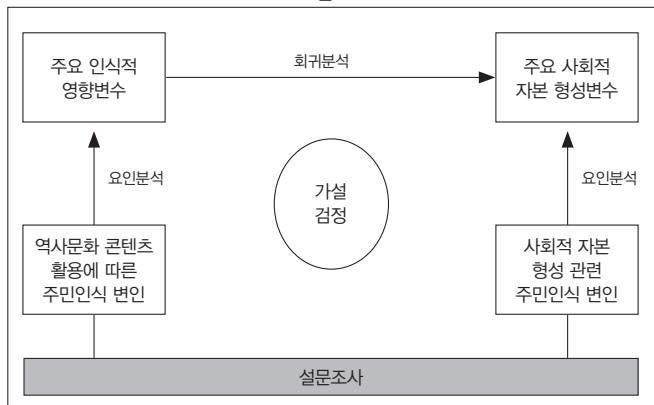
구 도심은 역사, 문화는 물론 예술·인물·종교 등 다양한 주제와 콘텐츠로 접근 가능한 공간으로서 그 활용 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외지인과 외국인을 비롯한 관광객, 수학여행지로 발돋움하는 등 도심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해 도시의 청사진이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이권희, 박종화 2014, 799-800).

2. 연구분석의 틀

1) 연구모형 및 가설 설정

본 논문은 사회적 자본 형성에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 인식적 변화 요인과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주민인식적 변화요인을 우선 추출한다. 그다음, 추출된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인식적 영향변수와 주요 사회적 자본 형성변수를 도출한다. 그리고 그 추출된 주요 인식적 영향변수를 독립변수로 하고 주요 사회적 자본 형성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최종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가설 검증을 실시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분석 과정은 <그림 1>의 연구모형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_ 연구모형



본 논문의 목적과 기존 논의 결과를 연계 정리하면 크게 다음 세 가지의 연구가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설 H1: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 인식 변화는 비시장적 상호작용 측면과 시장적 상호작용 측면이 함께 발현된다.

역사 문화콘텐츠는 해당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일상적인 생활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권영상 2011, 247). 이는 박제화된 역사자산 혹은 박제화되고 있는 문화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식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은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천이고, 사회학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 및 집단의 기호화 과정이며, 역사적 관점에서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역사문화 콘텐츠를 개발·보전·발전시켜 문화·교육·관광 등이 어우러질 경우 도심 커뮤니티의 역량강화 및 정체성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시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설 H2: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 인식 변화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역사문화 콘텐츠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자긍심과 정체성이 녹아 있는 자산이라는 측면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 고자하는 바람이 맞물리면서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심홍진, 이연경, 김지현, 김용찬 (2014, 484)은 지역민의 사회적 자본 형

성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뉴스미디어 이용,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의식 등에 주목하고, 공동체 의식 중 지역애착심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가설 H3: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인연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별 주요 주민인식적 영향 변수들의 내용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

가설 H3a: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인 경우, 주민인식 영향변수들 중에서도 보다 보편적이고 비시장적인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가설 H3b: 인연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인 경우, 보다 동질적인 집단 내의 교류와 시장적 가치추구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보다 높게 나타난다.

Putnam(2000, 22-24)이 제시한 교량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인연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의 구분에 따르면, 교량형 사회적 자본은 그 사회적 관계에서 성격이 포용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계층을 망라하는 외부지향적 집단들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인연형 사회적 자본은 성격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유사한 사람들의 내부지향적 집단들에서 발견된다. 즉, 본 논문의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들 중에서도 교량형 사회적 자본에 가까운 것과 인연형 사회적 자본에 가까운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한 주민인식적 영향변수들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면 차별화된 정책적 고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Granovetter 1985, 481).

2) 설문 내용, 대상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설문지는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거주지, 거주기간, 성별, 혼인 여부 및 자녀수, 연령, 직업 등)을 측정하는 7개 문항,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관한 주민인식을 측정하는 11개 문항,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변인을 측정하는 18개 문항 등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에 나타내었듯이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주민인식 관련 문항들은 구서일, 김우성(2014, 343), 이권희, 박종화(2014, 808), 김혜연(2011, 14-15)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관심 및 만족도, 역사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그리고 공동체 등의 문항을 바탕으로 하였다. 사회적 자본 형성의 변인과 관련된 문항은 이승철(2012, 442-443), 김승현(2008, 74), 소진광(2004, 104)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등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사용하였다.

각 변수의 하위척도별 내적 일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뢰도 계수 크론바하 α 의 값을 산출하였다.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에 대한 주민인식의 신뢰도 값은 0.596~0.887, 사회적 자본 형성의 신뢰도 값은 0.530~0.736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 내용이 각 변인별 요인을 상당 부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 설문조사는 2014년 9월 1일~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평가 방식으로 기입하도록 구성되었다. 설문은 대구 도심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관련, 교과와 연계된 체험학습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가한 교사, 학생, 학부모 등과 지역 거주민, 지역상인 등 간접적으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

1) Nunnally(1978)는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크론바하 α 값이 0.6 이상이면 충분하다고 봄.

표 1_ 측정변수와 설문 내용

변수	설문내용	문항수	신뢰도 (크론바하 α)	선행연구
신뢰	가족	5	0.530	이승철(2009) 김승현(2008) 소진광(2004)
	이웃			
	동료			
	공무원			
	공공기관			
참여	봉사단체	6	0.734	이승철, 허중옥(2010) 이승철(2009) 소진광(2004)
	종교단체			
	친목단체			
	시민단체			
	지역행사 참여도			
	정책 및 여론조사 참여도			
관심 및 만족도	거주 공간과 환경 만족도	5	0.596	구서일, 김우성(2014) 이권희, 박종화(2014) 박혜영, 김정주(2012) 김혜연(2011) 김정기, 박상만(2011)
	역사문화 콘텐츠 관심도			
	거주동네 만족도			
	대구지역 만족도			
	지역 자긍심			
역사문화 콘텐츠 가치평가	교육적 가치	6	0.887	이권희, 박종화(2014) 송희영(2012) 이태종(2009)
	경제적 가치			
	관광적 가치			
	역사적 가치			
	문화예술적 가치			
	지역정체성 확립			
네트워크	민·관·학 유대강화	2	0.696	이승철(2009) 윤두섭, 오승원(2007) 소진광(2004)
	공조시스템 구축			
규범	신고정신	2	0.570	소진광(2004)
	친분 및 관계의 중요성			
공동체	참여의지	3	0.736	박혜영, 김정주(2012) 하성규, 박기덕(2011)
	소통			
	협력			

사에 참가한 응답자는 320명이었으나,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설문 28부를 제외한 292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는 전체 응답자의 32.9%, 여자는 전체 응답자의 67.1%를 차지하였고 기혼은 46.2%, 미혼은 53.8%를 차지하였다. 기혼자의 경우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응답자 전체의 27.7%

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다. 연령별로 10대는 17.8%, 20대는 26.0%, 30대는 13.7%, 40대는 23.6%, 50대는 9.9%, 60대 이상은 8.9%를 차지하였다. 직업의 경우에는 회사원 16.1%, 공무원 5.5%, 전문직 5.5%, 교사 6.5%, 자영업 14.7%, 주부 15.4%, 학생 20.9% 기타 15.4%로 나타났다. 대구 거주기간은 1년 미만 거주 1.4%, 1~5년 미만 거주 4.5%, 5~10

표 2_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주민인식 요인분석

(단위: n = 292)

Barett의 단위행렬($\chi^2=3217.321$, $df=231$, $p=0.000$) Kaiser-Meyer-Oklín의 MSA= 0.867						
문항내용	요인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동체 학습 및 교류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경제 활성화
참여자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0.791	0.228	0.075	0.122	-0.131
공동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0.779	0.158	0.080	0.089	0.033
이웃과 교류가 강화된다고 생각한다		0.771	0.119	0.072	0.132	-0.217
소통 및 관계 형성에 도움된다고 생각한다		0.730	-0.043	0.157	0.176	0.186
도심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		0.201	0.841	0.194	0.145	0.092
도심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역사적 가치		0.268	0.807	0.114	0.076	-0.153
도심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문화예술적 가치		0.158	0.735	0.223	0.188	0.145
도심 역사문화 체험학습의 관광적 가치		0.179	0.713	0.239	0.283	-0.215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이 강화된다		0.214	0.207	0.751	0.122	-0.088
지역사회의 안전성이 높아진다		0.129	0.039	0.743	0.147	-0.046
지역사회 소득증진 기회가 확대된다		-0.014	0.235	0.731	0.007	0.191
지역사회에 대한 성취 자긍심이 생긴다		0.004	0.239	0.659	0.073	0.217
대구 도심 역사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다		0.084	0.225	0.148	0.707	0.418
살고 있는 동네에 관심이 많다		0.253	0.288	0.198	0.663	-0.150
대구지역이 자랑스럽다		0.203	0.059	0.298	0.636	-0.156
개발제한 등 경제적 성장기회에 제약을 받는다		-0.097	-0.153	0.083	-0.007	0.671
대구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0.416	0.208	0.268	0.057	0.590
고유값(eigen value)		3,884	3,577	3,113	2,042	1,666
분산(%)		17.654	16.259	14.150	9.283	7.572
누적(%)		17.654	33.913	48.063	57.346	64.918
신뢰도(크론바하 α)		0.688	0.881	0.789	0.675	0.620

년 미만 거주 9.6%, 10~20년 미만 거주 38.0%, 20년 이상 거주 46.6%로 나타나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응답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거주지가 도심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9.6%, 도심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표본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92개의 유효자료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확인된 요인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크론바하 α 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주요 요인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해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요 주민인식적 영향변수가 주요 사회적 자본 형성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IV. 실태분석 및 결과

1. 요인분석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 관련 주민인식과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구성요소와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을 통해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를 점검하였으며, KMO의 표본적합도 MSA를 통해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요인추출을 위해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요인추출 기준의 고유값(eigen value)은 1.0 이상으로 하여 직교 회전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스크리 검정(Scree Test)을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표 2〉는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변인들을 요인분석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주민인식에 대한 Bartlett의 단위행렬은 3217.321일 때 유의확률은 0.000이고 KMO의 표본적합도 MSA값은 0.867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7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

량의 64.91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학습 및 교류의 적재치는 0.730 이상,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의 적재치는 0.713 이상,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의 적재치는 0.659 이상,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의 적재치는 0.636 이상, 경제활성화에 관한 적재치는 0.5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사회적 자본 형성 관련 주민인식 변인들을 추출하고자 실시한 요인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한 Bartlett의 단위행렬은 3370.405일 때 유의확률은 0.000이고 KMO의 표본적합도 MSA값은 0.834로 나타나 요인분석을 위한

표 3_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요인분석

(단위: n = 292)

Bartlett의 단위행렬($\chi^2=3370.405, df=378, p=0.000$) Kaiser-Meyer-Olkin의 MSA=0.834								
문항내용	요인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요인 7
		소통과 참여의지	협력	공적 참여	사적 참여	공적 신뢰	사적 신뢰	네트 워크
참여자 간 소통이 잘 이루어졌다		0.837	0.053	0.139	0.077	0.042	0.010	0.136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0.825	0.027	0.113	0.030	0.016	0.105	0.113
향후 다른 심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0.802	0.024	0.174	0.024	0.116	0.097	0.049
시민 및 주민의 참여확대가 중요하다		0.735	0.196	0.008	0.157	0.147	0.104	0.174
주민, 참여자, 운영자 간 공조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0.048	0.782	0.108	0.002	0.019	0.075	0.163
민관 협력활동에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		0.085	0.777	0.058	0.022	0.020	0.019	0.047
참여자 간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0.156	0.736	0.201	0.056	0.041	0.118	-0.048
여론조사에 참여한다		0.170	0.089	0.758	0.209	0.071	0.038	0.054
지역 축제와 문화행사에 참여한다		0.067	0.064	0.721	0.210	0.045	0.140	0.035
불법 및 위법에 대해 신고한다		0.062	0.007	0.674	0.045	0.081	0.050	0.049
가족을 신뢰한다		0.061	0.116	0.011	0.108	0.007	0.749	0.130
직장동료를 신뢰한다		0.045	0.088	0.125	0.135	0.216	0.738	0.128
이웃을 신뢰한다		0.135	0.092	0.305	0.148	0.110	0.658	0.205
공무원을 신뢰한다		0.093	0.080	0.220	0.045	0.760	0.281	0.086
공공기관에 대해 신뢰한다		0.314	0.267	0.110	0.179	0.719	0.056	0.020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인연을 중시한다		0.086	0.054	0.147	0.759	0.017	0.172	0.047
친목단체에 활동한다		0.283	0.218	0.244	0.649	0.016	0.010	0.029
네트워크의 유대강화가 중요하다		0.076	0.156	0.212	0.129	0.118	0.081	0.628
이웃과의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0.025	0.059	0.026	0.155	0.121	0.054	0.605
고유값(eigen value)		4.418	3.501	3.237	1.497	1.706	1.711	1.258
분산%		15.777	12.502	11.567	5.347	6.094	6.112	4.492
누적%		15.777	28.279	39.846	57.400	52.052	45.959	61.892
신뢰도(크론바하 α)		0.738	0.629	0.719	0.568	0.612	0.601	0.585

변수의 선정이 적절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개 문항의 요인분석 결과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61.89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통과 참여의지의 적재치는 0.735 이상, 협력의 적재치는 0.736 이상, 공적 참여의 적재치는 0.674 이상, 사적 신뢰의 적재치는 0.658, 공적 신뢰에 대한 적재치는 0.719 이상, 사적 참여의 적재치는 0.649 이상, 네트워크에 관한 적재치는 0.605 이상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은 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강하고, 나머지는 모두 비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가설

H1인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변화는 비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과 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함께 발현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회귀분석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주요 주민인식 변수들이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기 위해 일곱 번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다.²⁾ <표 4>에 의하면,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주요 주민인식

표 4_ 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별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요인의 영향

구분	소통과 참여의지			협력			공적 참여			사적 참여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동체 학습 및 교류	0.728	18.075	0.000	0.572	10.825	0.000	0.312	6.205	0.007	0.772	18.117	0.000
교육문화 예술 가치인식	0.506	12.429	0.000	0.382	6.136	0.000	0.588	10.613	0.000	0.273	4.228	0.008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0.372	8.932	0.000	0.385	6.108	0.000	0.343	6.120	0.001	0.255	4.025	0.015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0.410	9.205	0.001	0.317	4.027	0.001	0.767	17.402	0.000	0.358	5.677	0.002
경제 활성화	0.347	8.438	0.001	0.452	9.826	0.000	0.305	6.706	0.015	0.569	9.036	0.000
P	87.525(p<0.001)			36.992(p<0.001)			29.503(p<0.001)			28.903(p<0.001)		
R ²	0.825			0.621			0.554			0.531		

구분	공적 신뢰			사적 신뢰			네트워크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표준화 계수	t값	유의 확률
공동체 학습 및 교류	0.329	4.890	0.008	0.475	5.294	0.000	0.236	3.626	0.027
교육문화 예술 가치인식	0.582	9.605	0.000	0.395	4.110	0.002	0.581	9.683	0.000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0.585	9.831	0.000	0.225	3.206	0.010	0.257	4.235	0.019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0.576	9.524	0.001	0.532	8.963	0.000	0.418	8.027	0.000
경제 활성화	0.345	4.998	0.004	0.278	3.841	0.005	0.306	6.506	0.008
P	28.277(p<0.001)			15.835(p<0.001)			24.920(p<0.001)		
R ²	0.528			0.493			0.506		

2) 일곱 번의 회귀분석에서 공차(tolerance) 값은 0.731~0.826이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은 1.211~1.328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검증에서 요구하는 공차값 0.1 초과 및 VIF값 10 미만을 충족하여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변수들, 즉 독립변수들은 예외 없이 사회적 자본 형성 변수들, 즉 종속변수들에 유의 수준 0.1% 미만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독립변수들 간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β 값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계수의 부호는 모두 정(+)의 값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 간에는 정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개별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결정계수(R^2)의 값은 0.825에서 0.493까지 다양하지만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개별 모형들의 설명력의 범위 내에서 가설 H2가 입증되고,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이 지역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화 계수인 β 값을 통해서 살펴볼 때,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으로서의 소통과 참여의지 변수의 경우에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와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반면에,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와 경제 활성화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이 약하다. 이는 소통과 참여의지 변수에 대한 공적 규율이나 시장적 가치 측면의 상대적 영향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형의 경우 모형설명력이 82.5%로 매우 높은 편이다. 협력 변수의 경우,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와 경제 활성화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 반면에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와 교육·문화예술 변수의 상대적 영향이 약한 편이다. 이는 공동체의 학습 및 교류 활동이나 경제 활성화 노력 과정에서 협력 형태의 조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을 시사한다. 반면에, 지역사회 관심이나 자긍심 또는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등은 상대적으로 협력행태 구성에 미약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형의 설명력은 62.1%다.

공적 참여 변수의 경우,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와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변수의 영향이 상대

적으로 중요하고, 경제 활성화 변수나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공적 참여 변수는 내용상 교량형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데, 해당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나 자긍심 그리고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교육·문화·예술적 가치인식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인연형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사적 참여 변수의 경우에는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와 경제 활성화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변수와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 그리고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하다. 인연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동질적 집단 의식이나 이해관계 추구에 집착하는 행태적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55.4%와 53.1%다.

공적 신뢰 변수의 경우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와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변수 그리고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경제 활성화 변수와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사적 신뢰 변수의 경우,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와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와 경제 활성화 변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여기서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는 공적 신뢰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사적 신뢰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는 공적 신뢰 측면과 사적 신뢰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고, 반면에 경제 활성화 변수는 공적 신뢰 측면과 사적 신뢰 측면 양자 모두에서 그 상대적 중요성은 떨어진다. 모형의 설명력은 각각 52.8%와 49.3%다. 네트워크 변수의 경우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변수와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와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의 상대적 중요성이 미약하다. 모형 설명력은 50.6%다.

3. 분석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함의

1) 분석 결과의 종합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서 역사문화 콘텐츠의 활용 관련 주민인식과 사회적 자본 형성 변수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통계적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대한 주민인식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동체 학습 및 교류,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경제 활성화 등 다섯 개의 주요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64.918%를 설명한다. 여기서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 그리고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변수는 비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강하고, 경제 활성화 변수와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는 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가설 H1이 입증됨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 소통과 참여의지, 협력, 공적 참여, 사적 참여, 사적 신뢰, 공적 신뢰, 네트워크 등 일곱 개의 주요 요인이 추출되었고 전체 변량의 61.892%를 설명한다.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요인들이 사회적 자본 형성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알아보기 위해 일곱 차례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외 없이 다섯 개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들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화 계수 β 값은 독립변수들 간에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그 부호는 모두 정의 값으로 긍정적인 영향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일곱 개 회귀모형들의 모형설명력은 결정 계수값을 통해 0.825에서 0.493까지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통해 가설 H2가 입증됨을 알 수 있다.

가설 H3의 경우 일곱 개 회귀모형의 표준화 계수

β 값과 유의확률값을 이용해서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형태의 H3a와 H3b의 경우 다소 불명료한 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으로 볼 수 있는 공적 참여 변수의 경우에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나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인연형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사적 참여 변수의 경우에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와 경제 활성화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H3a와 H3b를 입증하는 근거로 판단된다. 그런데 또 다른 인연형 사회적 자본 형성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사적 신뢰 변수의 경우,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와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고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와 경제 활성화 변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여기서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경제 활성화 변수의 상대적인 덜 중요함은 앞의 분석 결과와 불일치한다. 다만, 경제 활성화 변수는 공적 신뢰 측면과 사적 신뢰 측면 양자 모두에서 그 상대적인 중요성이 떨어지므로 경제 활성화 내용은 신뢰 측면과는 상호작용성이 낮은 관계에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 변수는 공적 신뢰 측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사적 신뢰 측면에서는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 그 내용적 특성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가설 H3a와 H3b의 경우 대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영역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정책적 함의

무형의 자산으로 인식되던 역사문화 콘텐츠의 잠재력이 다양하게 논의되면서 활용가치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도시재생 정책을 보완하는 요소는 물론 삶의

질을 재는 바로미터의 관점에서 언급되고 있다. 동일 맥락에서, 역사문화 콘텐츠의 이러한 기제는 성숙사회와 사회경제 발전의 요인으로 주목받는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역사문화 콘텐츠는 흩어진 기억과 흔적의 소생을 통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묶어내는 보완재로서의 가치가 인식되고 있으므로 사회적 자본 구축 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이권희, 박종화 2014, 811).

사회적 자본 형성에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변화는 비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과 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함께 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 학습 및 교류,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그리고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측면 등은 비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강하다. 반면에 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전 및 발전은 상대적으로 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의의를 순전히 문화예술적 콘텐츠의 보전이나 향유 차원의 비시장적 효과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은 관련 정책 효과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한정하는 편협한 정책적 시각으로 간주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의의를 소득 증대나 물리적 개발 기회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것 역시 제한적인 정책적 시각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변화는 지역사회가 새로운 무형적 자본 형태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의의를 확장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침체하고 있는 도심부 재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주민의 소외 현상과 공동체 해체현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기존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관련

문제점 해결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도시재정의 제약이나 위기 등이 거의 보편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훨씬 적은 재원으로 관련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Landry 2000). 결과적으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의의를 보다 확장된 정책적 시각에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종류나 관련 주민 인식적 영향 변수들의 내용을 감안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Putnam(2000, 22-24)이 제시한 인연형 사회적 자본과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경우 그 속성이나 내용이 다르고, 따라서 그 영향변수들도 내용 측면에서 상이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의 경우에는 주민인식 영향 변수들 중에서도 보다 보편적이고 비시장적인 가치의 상대적 중요성이 거의 대부분 더 높게 나타나고, 인연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보다 동질적인 집단 내의 교류와 시장적 가치추구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우선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에 영향이 큰 공적 참여 기회의 확대,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증진 노력,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의 확장 노력 등이 필요하다. 그 외에 인연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의 경우에는 세부적인 추구 목적에 따라 차별화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사적 참여의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의 영향이 중요한데, 사적 신뢰의 경우에는 경제 활성화의 상대적 영향력이 미약하다. 개발 제한 등의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그리고 동질적인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 있으므로 사적 참여 수준이 높게 나타남에 반해, 해당 사안 자체가 사적 신뢰 여부와는 별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V. 맺음말

역사문화 콘텐츠는 그 자체가 사회적 자본의 토대다. 역사문화 콘텐츠 각 요소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억과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역사문화 콘텐츠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가치를 보존하려는 의식과 관심으로 인해 신뢰의 규범을 만들며, 지역 및 단체인 교류 등의 광범위한 사회적 그물망을 형성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구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경험 관련 설문조사 형태의 주민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태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 의식의 부상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그리고 역사문화 콘텐츠와 사회적 자본과의 연계성을 기존 연구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우선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변화는 비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과 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함께 발현된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변화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인연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별 주요 주민인식적 영향 변수들의 내용적 특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교량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공적 참여 변수의 경우에 지역사회 관심 및 만족도 변수와 교육·문화·예술 가치인식 변수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인연형 사회적 자본에 해당하는 사적 참여 변수의 경우에 공동체 학습 및 교류 변수와 경제 활성화 변수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

다. 다만, 사적 신뢰와 공적 신뢰 변수들의 경우 참여 변수와는 상당 부분 이질적인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관련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고려사항으로서 우선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의 의의를 시장적 측면이나 비시장적 측면 어느 한 쪽으로 제한하지 말고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역사문화 콘텐츠의 보존·이용 노력이 병행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정책적 대처방식에서 사회적 자본의 종류나 관련 주민인식적 영향 변수들의 내용 차이를 감안한 차별화된 접근방식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도심부로부터의 인구유출 현상과 도심부 쇠퇴 경향은 창조적 도시재생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날로 관심이 높아지는 건강과 안전한 도시, 문화 복지, 교육에 대한 충분한 서비스 공급은 도시재생의 핵심 전략이 될 전망이다.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적 자본의 요소 중에서 사회활동 참여의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도시재생 현상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측면으로 해석된다. 역사문화 콘텐츠는 관광, 교육적 요소 이외에도 문화적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정책개발의 관점, 나아가 지역사회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찾는 데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인호, 김선명, 이계만, 이도석. 2014. 지역 역사문화 및 생태자원의 개발 진단 및 활용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권, 1호: 75-96.
- 구서일, 김우성. 2014. 해양레저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주민의식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5권: 341-349.
- 권영상. 2011. 면(面)적인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참여 거버넌스 비교.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7권, 4호: 239-248.

- 김남희, 2013. 국토 및 도시개발과 매장문화재보존의 갈등관리 방안. 국토 378호: 136-140.
- 김승현, 2008.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와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리학회보 42권, 2호: 67-88.
- 김정기, 박상만, 2011. Americ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ACSI)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지역축제 연구-익산시 지역축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3권, 1호: 55-81.
- 김진아, 2014. 마을만들기에 대한 공동체주의 이론적 해석-델파이 방법을 통한 적용가능성 탐색. 국토연구 83권: 113-127.
- 김향집, 2011.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재생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권, 4호: 123-148.
- 김혜연, 2011. 사회적 자본이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권, 3호: 1-29.
- 박수현, 김태영, 여관현, 2013. 문화마을만들기에서의 공동체의식 형성요인 연구-성남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권, 5호: 207-229.
- 박종화, 2011. 지역혁신체계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성. 국토연구 69권: 63-82.
- _____, 2015. 사회적 자본의 분포 불균등성: 처방적 정책논리의 탐색. 한국행정논집 27권, 1호: 1-22.
- 박혜영, 김정주, 2012.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분석-지역축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9권, 3호: 47-66.
- 배용규, 2013. 도시와 농촌이 융합하는 재생시대의 생활인프라 확충과제. 국토 382호: 37-47.
- 백기영, 2013.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변화. 동양일보, 8월 15일, 13.
- 변미리, 2014. 도시경쟁력과 문화가치. 문화정책 1권: 115-142.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권, 1호: 89-118.
- 송희영, 2012.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기획 연구. 예술경영연구 24권: 73-96.
- 심홍진, 이연경, 김지현, 김용찬, 2014. 지역민의 사회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보 58권, 4호: 484-506.
- 오동훈, 2014. 문화효소가 도시발전에 기여한 해외도시사례. 국토 388호: 54-61.
- 윤갑식, 오용준, 2014. 공동주택단지내 공동체의식 활성화 프로그램의 중요도 분석과 함의.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권, 3호: 125-138.
- 윤두섭, 오승원, 2007.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외부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남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집: 387-412.
- 이권희, 박종화, 2014. 도심 역사문화 콘텐츠의 도심재생 영향에 대한 시론적 분석: 대구도심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6권, 4호: 793-814.
- 이승철, 2009. 지역축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강원도 동해안 지역 동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 _____, 2012. 마을공동체의 동제의식과 사회적 자본 연구-동해안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3권: 429-459
- 이승철, 허중욱, 2010. 여촌지역 전통축제의 사회적 자본 형성. 관광연구저널 24권, 40호: 5-22.
- 이태중, 2009. 문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개발 정책방안: 신라문화권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회보 13권, 1호: 235-261.
- 장유미, 염동문, 2014. 지역 주민의 사회적자본과 정신건강과의 관계-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14권, 12호: 764-774.
- 조지현, 2007. 대구지역 근대문화사원의 테마별 활용방안.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 하성규, 박기덕, 2011. 사회적 자본의 영향 요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한국지역개발연구 12권, 4호: 133-153.
- Burt, R. S. 2000. The contingent malue of social capital. In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Foundations and Application*, ed. Lesser, E. L. Boston, MA: Butterworth-Heinemann.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Fine, B. 2001. *Social Capital Vs Social Theory: Political Economy and Social Science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London: Routledge.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no. 6: 1360-1380.
- Granovetter, M. S.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no. 3: 481-510.
- Landry, C.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London: Earthscan Publications.
- Lowndes, V. and Pratchett, L. 2008. Public Policy and Social Capital. In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eds. Castiglione, D., Van Deth, J.W. and Wolleb, G., NY: Oxford University Press. 677-707.
- Nahapiet, J. and Ghoshal, S. 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the organizational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 no. 2: 242-265.
- Nunnally, J. C. 1978. *Psychological Theory*. 2nd ed. NY: McGraw-Hill.
- Ostrom, E. and Ahn, T. K. 2007. The Meaning of Social Capital and Its Link to Collective Action W07-19. *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 Indiana University. 1-34.

- Putnam,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Y: Simon & Schuster.
- Warren, M. E. 2008. The nature and logic Of bad social capital. In Castiglione, D., Van Deth, J.W. and. Wolleb, G.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NY: Oxford University Press. 122-149.
- Woolcock, M. 2001. The place of social capital in understanding social and economic outcomes. *Isuma: Canadi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2, no.1: 1-17.

- 논문 접수일: 2015. 6. 25
- 심사 시작일: 2015. 7. 21
- 심사 완료일: 2015. 8. 6

요약

주제어: 역사문화 콘텐츠, 교량형 사회적 자본, 인연형 사회적 자본, 요인분석, 회귀분석

본 논문의 목적은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우선 기존 연구 결과와 본 연구 목적을 연계하여 세 가지의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한 가설검증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분석결과는, 우선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 인식 변화는 비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과 시장적 상호 작용 측면이 함께 발현된다는 것이다. 둘째,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 따른 주민인식 변화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교량형 사회적 자본과 인연형 사회적 자본의 형성요인별 주요 주민인식적 영향 변수들의 내용적 특성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관련 정책적 함의로서,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에서 보다 포괄적인 정책적 시각을 견지할 필요성과 사회적 자본의 종류 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접근방식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